인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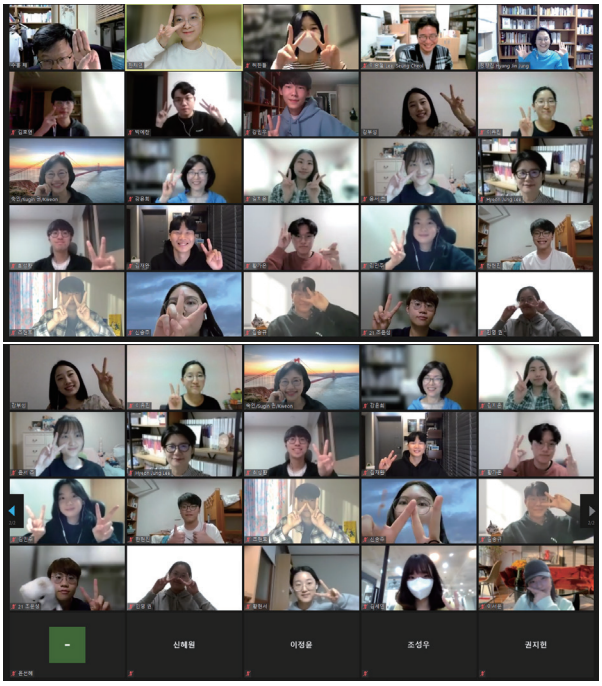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10호 2021년 봄호

인류학과 뉴스

발행일 | 2021. 3. 31. 발행인 | 채수홍 편집인 | 강부성

2021학년도 인류학과 온라인 대면식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신입생 OT와 MT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그 대안으로 학부생들과 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인류학과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참여 학생들과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 아쉽지만, 학과 교수님들과 신입생 및 재학생들이 함께 인사를 나누며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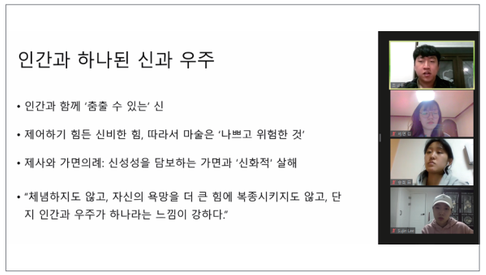
4단계 BK21교육연구단 시작

2020년 9월부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하는 4단계 두뇌한국21사업에 〈초연결시대 동아시아의 미래지향적 상호이해를 위한 문화전문가 교육연구단〉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시작하였다. 4단계 두뇌한국21사업은 3단계 BK21 사업의 후속으로 2020년 9월부터 7년간 진행된다. 이 사업은 학문후속세대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학술행사 및 연구활동 사업비 등을 지급하는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 사업으로, 지난 3단계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순조롭게 출발하였다.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신 동문께서는 소식지 담당조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에 다음 소식지에 게재 하겠습니다. 더 나은 소식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판된 인류학과 소식지는 인류학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소식지 담당조교: 강부성, kbs0910@snu.ac.kr

소모임



〈ARAS_김세연〉

안녕하세요 인류학과 가족 여러분!! 인류학회 ARAS(Anthropological Research Association of SNU)입니다. 지면을 통해 처음 인사드립니다. 인류학과에 인류학회가 있었냐고요? 네, 저희는 따끈따끈한 신설학회로 2020년 2학기에 인류학과 대학원을 생각하는 친구들끼리 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2학기에는 학회 초기멤버끼리 시범운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공식적인 모집은 받지 않고 초기멤버끼리 학회 진행을 했는데요, 총 9차의 정규세션을 통해 인류학 저서 3권과 논문 9편을 같이 읽었습니다. 특히 논문세션에서는 각자 관심있는 인류학 세부분야를 공유하고 함께 토의해보는 과정을 가졌는데, 세부분야의 다양함이 인류학의 매력인 만큼 다채로운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zoom을 통해 학회를 진행하게 되어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들과 (화면 속에서라도 얼굴을 맞대고ㅎㅎ) 인류학에 대한 무겁고 가벼운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2021년 1학기에는 공식적인 모집을 통해 학회의 몸집을 늘려 더욱 다양한 사람들과 인류학 공부를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늘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인류학과 교수님들과 조교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저희 ARAS도 학회라는 이름의 무게감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우라_문지원〉

브뤼노 라투르, 젊은 과학의 전선(2016) 독서 토론

인류학과 독서 소모임 '아우라'는 2020학년도 겨울 방학을 맞아, 브뤼노 라투르의 〈젊은 과학의 전선〉(2016)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을 진행했다. 2020-2학기에 가브리엘 타르드, 과학기술의 인류학, 과학철학 등등을 공부하며 라투르의 행위자-연결망 이론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모일 수 있었다. 한국어로 번역된 라투르의 도서 중, 테크노사이언스와 행위자-연결망의 구축을 다루고 있는 본 도서가 학생들의 흥미에 가장 알맞은 책이라고 생각해 선정했다. 모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줌을 통해 비대면으로 2시간씩 총 8회 이루어졌으며, 그중 6회는 도서를 장 별로 나누어 요약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고, 마지막 모임(1월 18일)에는 활동 도서와 관련된 글을 작성해 각자의 글의 논지를 발표하고 이에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매시간 발제자의 진행에 따라 라투르의 글을 더욱 꼼꼼히 이해하고, 라투르의 논의, 과학적 지식, 그리고 인류학 전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한 학자의 저서를 완독하고, 각 장의 논지를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토론 시간에 각자의 생각과 지식을 나눔으로써 저자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라투르의 논의와 과학 지식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인류학과 집담회

서울대 인류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과 비교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집담회를 주최 하였다.

일시	회차	주제 및 발표자
2020년 10월 20일	179회	"죽음과 관계-생성적 돌봄: 말기암 병동의 "사소한" 실천들"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BK사업단 연수연구원 강지연)
2020년 11월 17일	180회	"From Failure to Refusing Mainstream: Hopes, Strategies, and Practices in Three Unique High Schools in Contemporary Japan" (미국 미시건대학교 박사수료 Kunisuke Hirano)

온라인 해외전문가 및 석학 초청 강연회(zoom meeting)

일시	강연자 및 주제
2020.10.28.	강 연 자 Chris K. K. Tan (중국 난징대학교) 주 제 Virtually Girlfriends: The "Emergent Femininity" of the Women who Consume Virtual Loving Services in China
2020.11.17.	강 연 자 김향수 (청주교대) 주 제 만성통증 질병서사 속 사회적 고통과 자아 전략: 가족과 돌봄을 중심으로
2020.12.15.	강 연 자 백영경 (제주대학교) 주 제 탈성장 전환, 커먼즈, 돌봄
2020.12.10.	강 연 자 Vadim Akulenko (the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주 제 The Historiography of Korean Ethno-National Origins Discourse in the ROK and the DPRK
2020.12.29.	강 연 자 야마 요시유키 (일본 간세이가쿠인 대학교) 주 제 "재난 이후 마을 만들기와 마쓰리"
2021.2.9.	강 연 자 차이나 셔츠 (China Scherz)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인류학과) 주 제 "His Mother Became Medicine: Drinking Problems, Porous Selves, and Maternal Care in Central Uganda"

대학원생 하계 학술워크숍 개최

2021년 인류학과 대학원 동계 워크샵이 2월 25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대학원생 자치회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샵도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방식(Zoom)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연구계획 세션으로, 〈남성 뷰티 유튜버가 불러오는 젠더 지형의 변화〉(정수안/석사과정), 〈Holistic Healing in the context of New Age spirituality in the USA〉(Ana Sarem/석사과정), 〈래퍼의 존재양식: 랩 수행과 대구 힙합씬의 관계에 대한 인류학적 민족지〉(송재홍/석사과정), 〈Online Socialities: Pursuit of Belonging〉(Alicia/석사과정) 등이 발표되었고 각각 주도경, 황희선, 송준규, 이세희 씨가 토론자로 나섰다. 두 번째 주제 세션에서는 박사과정 박경민 씨가 〈코로나19 감염증 시대 인류학하기:Beyond "Being there"?〉에 대해 발표하였고, 최학락(박사과정)씨가 같이 토론하였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사이버스페이스와 젠더 : 인터넷에서의 현장연구 그리고 여성 공간의 형성과 함의〉이라는 주제로 앤쓰로피아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다. 손성규(박사과정) 씨의 사회로 〈〈zoom in zoom out〉: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한 페미니즘 독서모임 참여관찰 연구에 관한 소고〉(권은채/석사과정), 〈"동물은 타장르가 아니니까요": 트위터 내 새로운 관계적 가치와 인정〉(김윤정/석사과정), 〈"자해계"군집: 여성이자 '정신병자'이자 청소년의 자해 공유와 공동체적 발화 주체성〉(신경준/석사과정),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페미니즘의 영향과 변화〉(유승우) 등이 발표하고 청중들과 자유토론을 가졌다.

인류학과 대학원생들이 발간하는 〈앤쓰로피아〉 제 2호가 2021년 2월 출간되었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젠더〉라는 주제로 글을 모은 이번 호는 네이브 블로그 https://cafe.naver.com/anthropiA 에서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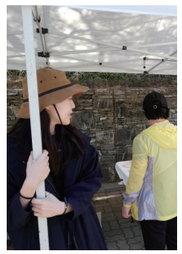
2020학년도 전기 인류학과 학위수여식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19학년도 후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과 졸업식이 개최되지 못하였다. 계속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대신하여 소식지를 통해 졸업색들의 소감 및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인류학과는 이번학기 석사8명(김태호, 주에 유안유안, 이주은, 김재완, 이경빈, 이인경, 이현서, 배희정), 학사11명(김지혜, 김민성, 장혜정, 김지윤, 허세영, 김세림, 권지우, 유경연, 최지우, 지대현, 석재현)을 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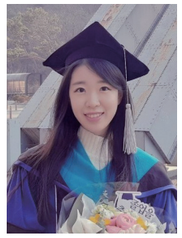
석사 17 주에유안유안

안녕하세요? 2020년 후기 인류학과 석사 졸업생 주에 유안유안입니다. 중국 유학생인 저에게 한국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은 아주 기쁜 일입니다. 한국으로 성형관광을 온 중국인을 대상으로 석사논문을 썼고, 코로나 19 때문에 한국에 못 들어가 중국에서 비대면 논문 심사를 완성한 것을 잊지 못하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초국경 실천을 하면서 초국경 연구를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힘든 과정에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교수님들, 선배님들과 동기들, 후배들께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저의 지도교수인 김재석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의 뒤에 곧 졸업할 중국 후배들에 응원을 보내고자 합니다! 모두 훌륭한 연구를 하고 무사히 졸업하세요~



석사 18 이경빈

학부 1학년, 다른 과 학생으로 인류학의 이해를 들으면서 인류학의 존재를 처음 알고 남 일처럼 재밌는 학문이구나 생각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인류학과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긴 고민 끝에 시작한 만큼 교수님, 동기, 선후배들에게 배우고 이야기 나누고 필드에 가면서 문득문득 참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긴 논문을 쓰는 것은 제가 공부할 때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며 괴로운 과정이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계속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남았으니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필드에서 함께 해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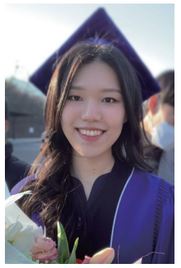
석사 18 이주은

안녕하세요, 석사 졸업생 이주은입니다. 스무 살 때 개론 수업으로 처음 맺은 인류학과의 인연이 흘러흘러 여기까지 왔네요. 가속도가 붙은 시간에 무임승차해 정신 없이 달려왔지만, 학사와 석사를 통틀어 이 곳에서 보낸 7년은 제게 그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인류학의 매력에 푹 빠져 "내가 이걸 배우려고 대학에 온 것 같다"고 고백하던 제게 행복해 보인다던 친구의 말이 기억나네요. 그 행복한 배움을 좇아 시작한 여정에서 존경스럽고 감사한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벽에 부딪힐 때마다 이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교수님들, 다양한 경험을 함께하자며 먼저 손 내밀어주신 선배님들, 그리고 곁에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됐던 동기 및 후배 학우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 모로 현장 연구를 하기 어려운 이 시국에 사회의 면면을 담아내려 노력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석사 18 김재완

학위기를 받고 졸업 가운을 걸친 채 교정을 누벼 보니 생각보다 더 홀가분하고 기쁩니다. 물론 졸업의 기쁨이라는 것은 몇 시간 동안만 싱싱하다가 금새 숨이 죽었지만요. 졸업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에는 또 다른 도전과 준비에 대한 궁리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다섯학기의 대학원 생활은 온통 타인들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찬 시간이었지만 그 모든 질문들은 결국 나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잠정적인 대답이자 연장으로 박사과정에 진학해 보기로 일단 마음을 먹었습니다. 진학 준비를 하면서, 3월부터는 인류학과 교무조교로 일하게 되었어요. 모두들 잘 부탁드려요!



학사 16 김세림

올해, SK이노베이션의 신입사원이 되며 5년간 몸담았던 학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신입생 때 '인류학의 이해'를 들으며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라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만큼 지난 5년 동안의 제 자신을 잘 표현해주는 문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전세계에서 낯선 현장을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자아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지만, '인류학스럽게' 살며 또 다른 저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인류학과에서 만난 모든 선배, 동기, 그리고 후배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학사 17 석재현

안녕하세요, 인류학과 17학번 석재현입니다. 제가 벌써 졸업을 하고, 졸업 후기를 쓰고 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동안 깊은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 새내기때부터 함께 많은 추억을 쌓은 동기들, 선후배님들과 직접 만나 인사드리고 졸업했다면 좋았을텐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그러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4년간 인류학을 공부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과 마음을 정말 많이 넓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인류학 수업들을 통해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그들을 이해해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도 많이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앞으로의 삶을 성숙하게 헤쳐 나가는 데에 참고할만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올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새로운 사람들과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중인데, 학부 생활동안 쌓은 경험들을 통해 이곳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학부생활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교수님들, 동기들, 선후배님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1학년도 인류학과 입학식

21학번 학생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인류학과 학사 21학번 조소영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21학번 조소영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선망해온 학과의 소식지에 입학 후기를 작성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한반도에도 지역에 따라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데, 훨씬 거대한 지구촌에는 얼마나 다양한 문화가 존재할지 궁금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를 연구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이후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마거릿 미드의 자서전에서 그녀가 인류에 대한 귀중한 자료들이 사라져 감에 위기를 느껴 인류학을 선택해 공부했음을 읽고, 그녀의 생각에 공감하여 저 역시 인류학을 공부하고자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저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류학은 매우 생소한 학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인류학이 세계화 시대에 개인과 국가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에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의 훌륭하신 동기, 선배, 교수님들과 함께 우수한 교육 과정 속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

인류학과 박사 21학번 이소영

박사학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의 마음가짐은 석사 때와는 사뭇 다른 듯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이전보다 확실해졌다는 생각 때문일까요? 선택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고 공부에 대한 태도 또한 이전보다 진지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학을 처음 접한지도 벌써 10여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인류학이 무엇인지 몇 마디로 설명하는 일은 너무 어렵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다가오는 인류학이 인간을 대하는 깊고 따듯한 시선이 저를 이곳까지 데려온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문의 가치는 사람들이 막연히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을 명확한 문장으로 표현해 냄으로써 현실을 보다 선명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기나긴 박사과정의 끝에서 저 또한 인류학을 통해 세상을 선명하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학과 석사 21학번 이진우

인류학 석사과정생이 된다는 소식을 전할 때 주위에서 보이는 반응은 크게 "왜?" 그리고 "인류학이 뭐 하는 학문이야?" 두 갈래로 정리됩니다. 어느 하나도 명쾌하게 답할 수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왜 인류학을 공부하겠다고 결심했을까요. 인류학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학부 시절 인류학을 주전공으로 선택한 이유는 인류학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고 세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기보다는 본능적인 끌림이었고, 그래서 아직도 이유를 물어보면 주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그 끌림에 대한 이성적인 설명을 찾기 위해 석사 과정에 입학했다는 생각도 합니다. 제대로 공부해 나간다면, 어느새 저 질문들에 대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게 되겠죠. 입학한 지 한 달여가 채 되지 않았지만, 아직은 자신감보다는 작은 좌절감들을 쌓아나가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제 생각의 얕음에 실망하고, 논리의 허점에 좌절하고, 사고의 섬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 없어 머리를 싸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를 이끌었던 끌림이 남아 있다면, 이 좌절감들을 동기부여로 바꿔내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대학원에서의 시간을 크게 꿈꾸고, 크게 좌절하고, 더 크게 성장하는 시간들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원생 학술논문 및 단행본

김경민 (박사과정)

학 술 지 『사회과학연구』 제36집(2020.12.)

논문제목 그들은 왜 쉼터를 들를 수밖에 없는가? : 네팔여성이주노동자의 고용불안정, 전략적 대응, 그리고 정체성을 중심으로

황희선 (박사과정)

『헬로-스트레인저!』 하자. 2020.11. (공저)

유지현 (박사과정)

『2021 한국의 논점』 북바이북. 2020.12. (공저)

김성인 (박사과정)

학 술 지 『비교문화연구』 26권 2호(2020.12.)

논문제목 애도불가능성을 전복할 연대의 시선을 찾아서: 권헌익(정소영 옮김), 2020, 『전쟁과 가족: 가족의 눈으로 본 한국전쟁』, 파주: 창비

유승우 (박사과정)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12. (공저)

이하얀 (박사과정)

『화성시사13. 역사를 품은 공동체, 변신을 꾀하다』 화성시. 2020.10. (공저)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참가

AAS-in-Asia (2020.09.02.)

발 표 자 황희선(박사과정)

발표주제 "From Landraces to Native Crops: Transformation of Social Values of Farmers' Varieties in South Korea"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and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Dissertation Workshop Series (2019 ~2020)

발 표 자 Oxana Rakova(박사과정)

발표주제 "Designing for Social Change in Seoul: actor-networking the citizen participatory design."

UWA Korean Studies Postgraduate Workshop(2021)

발 표 자 Oxana Rakova(박사과정)

발표주제 "The Ontological Politics of Participatory Urban Governance."

AAA Raising our Voices 2020 (2020.11.05.~2020.11.14.)

발 표 자 박경수(석사과정)

발표주제 "The social life of atopic new drugs and interaction with patients"

발 표 자 이세희(석사과정)

발표주제 "Obscuring Structural Violence: Media Representation and Online Discourse of BLM in South Korea"

Anthrozoology as International Practice (AIP2021)(2021.3.4-5)

발 표 자 김윤정 (석사과정)

발표주제 Why are We Crazy about Animal Contents? : The popularity of animal contents in Korean society and its implication

학회 및 연구활동

강윤희 한국사회언어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AAS 2021 Virtual Annual Conference (2021. 3. 23.)

김재석 통일기반구축 연합학술대회

이현정 한국문화인류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기록학회 동계학술대회
청년 자살예방을 위한 국회긴급간담회
2020 서울 생명사랑 국제 자살예방 온라인 심포지엄
정책포럼 자살예방, 국회 생명안전포럼, 생명안전 시민넷

정향진 통일기반구축 연합학술대회
World Council of Anthropological Associations 8th Webinar(2021.2)

Olga Fedorenko Sharing Suits and Stories in Seoul: Sharing Economy and its Socialites at a Used Clothing Startup in South Korea. Center for Korea Studies Colloquium, the Henry M. Jackson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Washington(2021.4.8)
Koreanness and Otherness in Orion Choco Pie Advertisements: National Sentiments and Politics of Difference. The 6th World Humanities Forum(2020.11.19-21)
"Transformations of Jeong in Orion Choco Pie Advertisements. "Korea Research Collaboratory Beyond han: New interpretations of Korean emotions. Korea Research Centre at The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2021.2.4-5)
Domestic Spaces in Korea: Reconfiguring Historical Narratives (discussant).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Annual Meeting(2021.3.22-26)

교수 동정

- **인류학과장 부임**
  채수홍 교수(2020.9.1.,2년)
- **신임교수 부임**
  이승철 교수
  (2020.9.1., 조교수 발령)
- **중국연구소 소장 부임**
  김재석 교수(2021.3.1., 2년)
- **비교문화연구소 소장 부임**
  이현정 교수(2021.3.1.,2년)
- **인류학과 대학원 주임 부임**
  Olga Fedorenko 교수
  (2021.3.1.,2년)
- **아시아연구소 HK교수 부임**
  권헌익 교수(2021.4.1., 1년)

논문 및 저서 출판

강윤희

2020 "인류학자들 동남아를 말하다" 『눌민』

강정원

2020 "한국 민속문화 정책과 민속학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2020 "북한의 민속" 『민속원』
2020 "한국민속학의 미래적 가치" 『민속원』
2020 "현대화와 민속문화" 『민속원』

김재석

2020 "중국 사회복지 정책의 강화와 청년의 호출: 광둥성 쌍백(雙百) 계획과 사회복지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54집 1호

박순영

2020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ooth wear of the first molar and the estimated age from the auricular surfaces in a Joseon Dynasty population, South Korea",INTERNATIONAL JOURNAL OF OSTEOARCHAEOLOGY
2020 "뼈로 읽는 과거사회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이승철

2020 "Magical Capitalism, Gambler Subjects: South Korea's Bitcoin investment frenzy", Cultural Studies

이현정

2020 "피해자, 시민, 부모로서 건강할 권리: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경우" 『한국문화인류학』
2020 『펑롱현 사람들』, 책과 함께
2020 "마을 중심이 번화한 시내가 될 때까지", 『민간 중국: 21세기 중국인의 조각보』, 책과 함께

정향진

2020 "Family Metaphors in Religion: Cases from the Korean Peninsula", American Religion(supplement I).
2020 [Book Review] Emotional Worlds: Beyond an Anthropology of Emotion. Beatty, Andre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314 pp. American Ethnologist.

채수홍

2020 "인류학자들, 동남아를 말하다" 『눌민』

신진연구인력 학술활동

오은정 (BK조교수)

학 술 지 『한국문화인류학』 53권 3호(2020.11.)

논문제목 재후(災後)의 시공간에 울려 퍼지는 '부흥'이라는 주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부흥의 사회드라마와 느린 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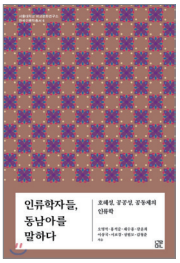
신간 안내

평롱현 사람들: 개혁기 중국 농촌 여성의 삶, 가족 그리고 문화

이현정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촌의 현실을 면밀히 관찰한 인류학적 보고서

중국에서 개혁개방이 한창인 2000년대, 저자는 중국 허베이성의 농촌 평롱현을 현지조사하며 평롱현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고,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중국 농촌의 현실과 농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드러내 보여준다. 오늘날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개혁개방 이전의 '배고팠던' 삶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며, 마오쩌둥 시기를 겪어본 나이 든 세대도 개혁개방 이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낫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그렇지만 평롱현 주민들은 이미 시장개혁이 생성해낸 긍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꽤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절대적인 수준에서 과거에 비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지역 내에서도 예전에 비슷했던 사람 간에 빈부 차이가 급속하게 벌어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농촌 주민들에게 개혁개방은 과거에 대한 선별된 기억들과 중국 발전에 대한 정부의 화려한 선전 속에서 의심 없이 희망적인 현실 조건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류학자들, 동남아를 말하다 호혜성, 공공성, 공동체의 인류학

오명석, 채수홍, 강윤희 외

동남아는 지리적, 종족적, 종교적, 언어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인도와 중국의 영향, 아랍과 서구와의 지속적인 교류, 화인들의 이민, 제국주의 세력의 식민화, 태평양전쟁 등을 공유하며 복잡다단한 지역적 특수성을 형성해왔다. 동남아는 각 지역과 국가마다 다양성이 존재하는 한편 유사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홍석준의 제안과 같이 "이 지역을 개별적으로 보는 동시에 전체적으로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동남아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는 동남아의 복잡하고 다채로운 사회, 문화, 정치, 역사만큼이나 스펙트럼이 넓다. 종족, 종교, 교환, 언어와 같은 인류학의 전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정치, 경제 현상 또한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 책 또한 종족성, 마르셀 모스의 교환 이론, 언어를 통해 보는 사람됨 등과 같은 인류학적 개념을 탐구하면서도, 지역과 국가, 자본과 노동, 경계와 국경, 국제 협력과 공동 대응, 이민과 난민, 공공 의료와 같은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파고들고 있다.

현대화와 민속문화

강정원 편저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인류학 총서. 현대화와 현대성에 관련된 민속학적 이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집필되었다. 대안적 민속문화의 발굴에만 그치지 않고 경험 자료를 기반으로 이론적 체계화와 혁신을 꾀하고 있다.

발전기금 모금 안내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인류학과는 1961년 고고인류학과로 출발하고 1975년 인류학과로 독립한 이후 그간 학과의 내실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그 결과 인류학과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기는 하나 문화적 감수성과 다양성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교육부로부터 4년 6개월 동안 BK21+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며 2020년 9월부터는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에 선정되어 3단계 BK21 사업의 후속으로 7년간 진행 됩니다. 이 사업으로 학문후속세대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들의 장학금 등이 대폭 확대되고 연구지원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류학과는 크게 도약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연구와 동아시아연구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거점 학과, 그리고 한국사회와 타사회 간 문화소통 및 한국문화를 융성시키는 데 기여할 글로벌인재를 키워나가는 학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인류학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출연해주시는 발전기금은 인류학 훈련에서 꼭 필요한 실험실습, 현지조사 실습, 해외답사, 해외장기 현지조사, 현지어훈련, 학술지출판 등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발전기금 모금에서 소액기부와 월정액기부를 특히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성과 참여로 인류학과가 나아갈 길을 축복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학과장 **채수홍 교수**

*발전기금 참여신청서는 본 소식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전기금 담당조교 : 강부성 (02-880-6419 kbs0910@snu.ac.kr)